

##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역량,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

권혜진\*\* 전숙영\*\*\*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s Temperament,  
Mothers' Parenting Competency,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Kwon, Hye Jin Chun, Sook Young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개인변인인 기질요인과 환경 변인으로 어머니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 및 양육실제를 함께 고려하여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문제행동 중재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5차년도(2012년) 한국아동패널데이터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유아 1703명과 그의 어머니가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요인 중 정서성기질은 어머니 양육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활동성기질과 사회성기질은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둘째, 유아의 기질요인 중 정서성기질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유아의 기질요인 중 활동성기질과 사회성기질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덜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역량은 자녀의 기질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어머니 교육은 자녀의 기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양육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 주제어 : 기질, 양육역량, 외현화 문제행동

\* 본 연구는 2015년도 나사렛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본 논문은 2015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

\*\* 제 1저자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E-mail : jini2005@kornu.ac.kr)

\*\*\* 교신저자: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E-mail : sook0830@kornu.ac.kr)

## I. 서론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환경이며 그 중에서도 주 양육자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어머니 관련변인을 선행변인으로, 자녀의 발달이나 행동특성을 결과변인으로 설정하여 어머니 요인이 자녀변인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김수정, 곽금주, 2013; 신나나, 박보경, 김소영, 도현심, 2015; 임현주, 2014; Gilliom & Shaw, 2004; Miner & Clarke-Stewart, 2008), 효능감(남궁령, 2015; 문영경, 민현숙, 2012; Coleman & Karraker, 2003; Sanders & Woolley, 2005; Weavera, Shaw, Dishion, & Wilson, 2008) 등이 아동의 발달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경우 자녀의 자기조절력과 또래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남궁령, 2015),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은 낮았다(Weavera et al., 2008). 어머니의 온정적 행동은 자녀의 긍정적 행동(Halverson & Deal, 2001), 적응적 행동(김수정, 곽금주, 2013)을 격려하고 공격적 행동(최미나, 2015; Gilliom & Shaw, 2004; Miner & Clarke-Stewart, 2008)을 덜 나타나게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개인차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효능감 간에 강한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김미정, 이경님, 2011; Coleman, & Karraker, 1998; Leerkes, & Crockenberg, 2002; Woods, 2011).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유능성에 대해 내리는 판단, 특정 행동의 수행에 대한 개인의 기대 또는 신념(Bandura, 1997)이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어머니 자기효능감은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산후관리 자기효능감 등과 같이 부모역할과 관련된 효능감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되거나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인 양육효능감으로 주로 연구되어왔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문영경, 민현숙, 2012; 신나리, 안재진, 2014). 관련연구들은 어머니 개인마다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자기효능감의 개인차에 의한 결과(이상균, 유조안, 2015; 최형성, 2005)로 설명하고 있다. 높은 자기효능감은 자녀의 신호를 잘 이해하고 긍정적이며 반응적이고 온정적 양육행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반면 낮은 자기효능감은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 수동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대처 등과 관련이 있다(김미정, 이경님, 2011; 최형성, 2005). 즉, 어머니 자신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양육 상황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어 자녀에게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Sanders & Woolley, 2005). 그 결과 자녀의 발달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전은주, 2015; Kuhn, & Carter, 2006; Walker & Cheng, 2007)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역할 수행을 돕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자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통합하여 양육역량(parenting competency)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김명하, 2013; 박수홍, 정계숙, 유미숙, 차지량, 홍광표, 2013; 장혜진, 이정림, 윤은주, 김해인, 2013; Gilmore & Cuskelly, 2008). 양육역량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한데(Gilmore & Cuskelly, 2008), 선행연구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양육지식과 양육기술 등과 같은 구체적인 양육행동실제와 부모 자신에 대

한 자기인식 등이 부모에게 필요한 양육역량(김명하, 2013)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을 의미하는 어머니의 효능감과 구체적인 양육행동 실천을 의미하는 온정적 행동을 양육역량 변인으로 구성하여 자녀의 발달 및 행동특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 요인이 자녀의 발달 및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자녀의 특성이 어머니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Roskam & Meunier, 2012).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자녀의 기질이나 문제행동 등과 같은 부정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역량은 다양한 생태학적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특히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자녀의 기질이 고려해야 할 주요한 요인(Reeder, Duncan, & Lucey, 2003)이다. 부모와 자녀의 행동 특성은 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신나나 등, 2015; Thomas, Chess, & Birch, 1984) 부모-자녀관계의 양방향적 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기질을 평가하는 방식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Buss와 Plomin(1984)은 정서성기질, 활동성기질, 사회성기질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제안하였고, 그 중에서도 유아의 정서성기질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하는 등 일반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많이 나타내는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타고난 성향인 유아의 기질은 특히 어머니의 지각이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Lengua, & Kovacs, 2004; Miner & Clarke-Stewart, 2008)으로 알려져 있다. 자녀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긍정적 양육행동이나 부정적 양육행동을 유발하며(Belsky, 1984), 어머니들이 자녀가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하는 등 일반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많이 나타낸다고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문영경, 민현숙, 2012; Teti & Gelfand, 1991) 자신의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Cutrona & Troutman, 1986).

또한 유아의 기질은 유아의 행동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반응 등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알려져 왔다.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행동발달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정서성기질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일관되고 보고되고 있다(임현주, 2014; Eisenberg, Sadovsky, Spinrad, Fabes, Losoya, Valiente, Reiser, Cumberland, & Shepard, 2005; Miner & Clarke-Stewart, 2008). 외현화 문제행동은 갈등과 어려움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인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며 공격성, 주의산만한 과잉행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활동성기질과 사회성기질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이루어졌고, 연구결과 역시 일관된 경향성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활동성기질과 사회성기질이 활동적이고 사교적으로 작용하여 긍정적 특성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Coleman & Karraker, 2003), 활동성기질이 높으면 자극추구나 위협 추구 성향이 높아 공격행동, 주의산만 등의 문제행동으로 발현되기 쉬울 수 있다(이정숙, 문보경, 2010; Berdan, Keane & Calkins, 2008)고 보고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질특성이 직접적으로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지 좀 더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자녀가 유아기에 이르면 대부분 교육기관에 취원하여 집단생활을 하게 되면서 문제행동도 나타나게 된다. 특히 다양한 사회집단에서 활동하는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집단생활에서 공격성이나 주의산만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경우 부모에게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다루어야 할 큰 숙제가 된다.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높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의 문제행동을 나타내며(Weavera et al., 2008), 어머니의 온정적 행동행

등은 자녀의 긍정적 행동(Halverson & Deal, 2001), 적응적 행동(김수정, 곽금주, 2013)과 정적 관련을 나타내며, 공격적 행동(Gilliom & Shaw, 2004; Miner & Clarke-Stewart, 2008)과는 부적 관련성이 보고되었다.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 개인변인에서는 기질이, 환경 변인에서는 부모의 양육관련 변인이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문제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유아의 기질 특성을 이해하고 어머니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믿고 실제로 적절하게 반응하는 역량을 갖는 것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개인변인인 기질특성과 환경 변인으로 유아와 가장 가까이에서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는 어머니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실제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역량을 함께 고려하여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자료 중 조사 대상이 유아기에 진입하여 처음으로 문제행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타고난 특성인 기질과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는 정도인 자기효능감과 자녀에 대한 온정적 양육을 양육역량이라는 잠재변인으로 생성하여 자녀의 기질과 외현적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역량,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세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개인적 특성인 기질과 환경적 특성인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육아정책 연구소에서 제공한 5차년도(2012) 한국아동패널자료(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를 사용하였다. 5차년도 조사에 응한 유아 1703명과 그의 어머니가 대상이 되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4.80(SD=3.64), 유아의 평균 개월 수는 51.89개월(SD=1.24개월)이었고 남아가 870명(51.1%), 여아가 833명(48.9%)이었다.

### 2. 연구도구

#### 1) 유아의 기질

EAS 기질척도 부모용(The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을 사용하였다(Mathiesen & Tambs, 1999). 이 척도는 정서성기질, 활동성기질과 사회성기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성기질이 10문항이고, 활동성기질, 정서성기질이 각 5문항이다. 정서성기질은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많이 나타내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이다’,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 빠진다’,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등이 그 예이다. 활동성기질은 아동의 움직임이 좋고 활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우리 아이는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역 채점 문항)’ 등이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성기질은 아동이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우리 아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 한다’, ‘우리 아이는 친구를 쉽게 사귀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문항평균점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많이 나타냄을 의미한다. 정서성기질, 활동성기질, 사회성기질의 Cronbach  $\alpha$  = 각각 .752, .757, .826으로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양육역량

잠재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역량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스타일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 (1)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은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그리고 권희경(1999)이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온정적 양육 척도로 측정되었다. 온정적 양육 척도는 총 6문항으로,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와 같이 자녀에 대한 온정적 양육스타일을 알아보는 척도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문항평균점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63로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Pearlin의 자기효능감 척도(The Pearlin Self-Efficacy Scale)로 측정되었다.(Mainieri, 2006; 육아정책연구소, 2009에서 재인용).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된 Pearlin Self-Efficacy Scale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육아정책연구소, 2009)이다. ‘살면서 때때로 뭔가에 휘둘리는 느낌을 받는다’, ‘삶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자주 느낀다’ 등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문항평균점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모든 문항을 역 코딩하여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4로 나타났다.

### 3)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CBCL 1.5-5(오경자, 김영아, 2009)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100개의 문항에 대해 6개월 내에 유아가 그 행동을 보였는지를 판단하여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주의력 문제, 공격적인 행동 등 통제가 부족한 행동문제를 반영하는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 소척도의 합으로 외현화 문제행동(externalizing problems)을 평가한다(육아정책연구소, 2013)

#### (1) 공격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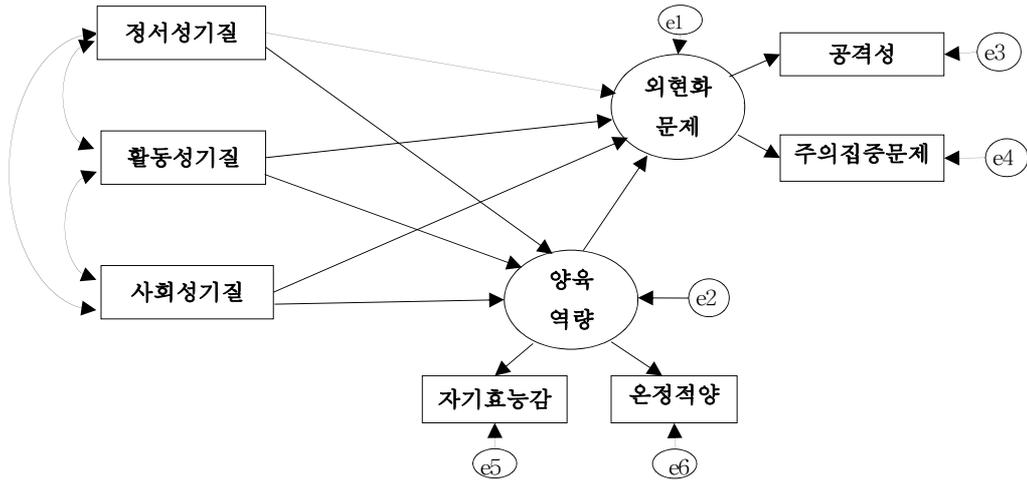
타인에 대한 신체적인 공격과 기물파괴 등의 행동적인 측면과 자신이 요구를 이기적으로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쉽게 좌절하고 반항적이 되거나 분노발작을 하는 등의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0~38점이다. Cronbach  $\alpha$ =.873로 나타났다.

#### (2) 주의집중문제

안절부절하고 부산하게 움직이는 과잉행동, 운동신경이 둔한 것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문항으로 점수의 범위는 0~10점이며,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  $\alpha$  =.568로 나타났다.

### 3. 통계 모형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역량과 유아의 기질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역량, 외현화 문제행동이라는 두 개의 잠재변인에 특정 지표변수를 설정한 [그림 1] 과 같은 구조회귀 모델을 통계적 검증 모델로 설정하였다. 구조회귀 모델의 통계적 검증에 앞서 연구 자료가 구조방정식 모형에 적합한 정규성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9.0을 이용하여 변수들의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의 기술 통계치와 첨도, 왜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산출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특성 및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어 구조회귀 모델의 통계적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하고 이후 측정모형로 구성된 구조회귀모형을 검증하는 2단계 검증절차(문수백, 2009)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였다. 측정변인들 간의 다변인 정규분포의 가정이 충족되어 최대우도추정 방법으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절대적합지수인  $\chi^2$ 값, RMSEA과 증분적합지수인 TLI, CFI, NFI를 통해 모델의 부합도가 평가되었으며, 이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림 1] 연구모델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연구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관계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N=1,703)

Variables	1	2	3	4	5	6	7
기질	1.정서성기질	1					
	2.활동성기질	.10**	1				
	3.사회성기질	.18***	.39***	1			
양육역량	4.온정적 양육	-.27***	.17***	.10***	1		
	5.자기효능감	-.16***	.04	-.05	.23***	1	
외현화문제	6.공격행동	.45***	.02	.05*	-.24***	-.13***	1
	7.주의집중	.23***	.06*	.08**	-.23***	-.02	.55***
M	2.80	3.15	3.21	3.66	3.76	6.48	1.29
SD	.64	.37	.32	.54	.74	.50	1.36
Skewness	.17	.12	-.10	-.04	-.35	.83	.90
Kurtosis	.08	.97	1.25	.15	.02	.39	.23
case	1670	1666	1663	1674	1669	1694	1694

\*  $p < .05$ , \*\*  $p < .01$ , \*\*\*  $p < .001$

측정변인들 간의 상호상관관계와 기술 통계치는 <표 1>과 같다. 먼저 유아의 기질의 평균은 정서성기질 2.80, 활동성기질 3.15, 사회성기질 3.21로 나타나 활동성과 사회성기질은 보통 수준 정도이며 부정적 정서인 정서성기질은 이에 비해 낮은 평균을 보였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인 공격성의 평균은 6.48, 주의집중 문제는 1.29로 나타나 대체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및 자기효능감은 각각 3.66, 3.76으로 대체로 보통 수준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절차를 통해 구조방정식 모델 하의 7개 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왜도(2.0이하)와 첨도(7.0이하) 모두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다변인 정규분포성 가정을 충족하므로 최대우도추정 방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하여 모델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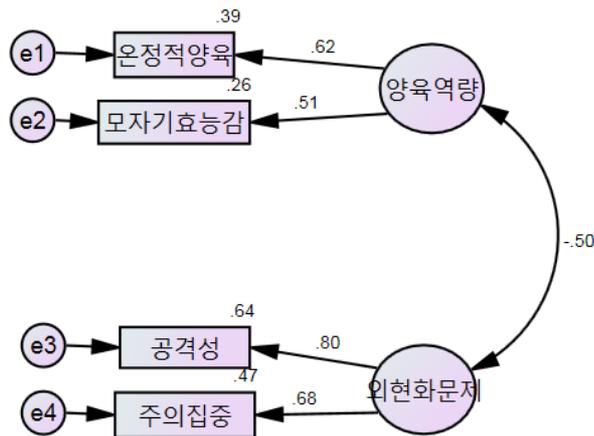
## 2. 측정모델의 적합도 검증과 모수치 추정결과

연구모델의 통계적 검증에 앞서, 어머니의 양육역량, 외현화 문제행동이라는 두 개의 잠재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hi^2=3.161(df=1, p>.05)$ , TLI=.977, CFI=.998, NFI=.997, RMSEA=.032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델의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는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를 통해 잠재변인들이 구성하는 지표변수의 요인 부하량을 살펴보면, 평균 .60이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표변수의 요인 부하량의 평균이 최소한 .5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문수백, 2009)을 만족시켜 지표변수가 잠재변인을 잘 설명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 양육역량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잠재 변인들 간에 변별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가 -.50으로 나타나 변별타당도를 위한 기준인 .85이하(문수백, 2009)임을 확인하였다.

<표 2> 측정모델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df	p	TLI	CFI	NFI	RMSEA
측정모델	3.161	1	.075	.977	.998	.997	.032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 3. 연구모델의 부합도 검증과 모수치 추정결과

앞서 측정모델의 부합도 지수와 모수치가 그 기준을 충족하므로, 연구모델의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역량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인 잠재변인과 유아의 정서성기질, 활동성기질, 사회성기질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한 초기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검증하였다(표 3). 그 결과 대부분의 부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인들 간의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활동성기질과 사회성기질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C.R. =1.20, .25,  $p>.05$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구조회귀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유아의 활동성기질 및 사회성기질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간의 경로를 삭제하여 [그림 3] 과 같이 수정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표 3> 초기 연구모델의 부합도 지수

모형	$\chi^2$	df	p	TLI	CFI	NFI	RMSEA(.06)	
							Lo90	Hi90
초기 모델	58.70	7	.000	.87	.97	.96	.01	.04

<표 4> 초기 연구모델의 경로계수

			un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C.R.
정서성기질	→	양육역량	-.14	-.42	.03	-4.78***
활동성기질	→	양육역량	.13	.23	.03	4.07***
사회성기질	→	양육역량	.07	.11	.03	2.75**
정서성기질	→	외현화 문제행동	2.80	.37	.28	10.17***
활동성기질	→	외현화 문제행동	.46	.04	.38	1.20
사회성기질	→	외현화 문제행동	.10	.11	.40	.25
양육역량	→	외현화 문제행동	-5.30	-.22	1.26	-4.21***

\* $p<.05$ , \*\* $p<.01$ , \*\*\* $p<.001$

### 4. 최종 연구모델의 부합도 검증과 모수치 추정결과

앞서 검증한 초기 구조회귀 모델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한 수정된 모델의 부합도 지수를 검증한 결과 <표 5>와 같으며, 초기 모델보다 부합도 지수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최종 연구모델 모델의 부합도 지수

모형	$\chi^2$	df	p	TLI	CFI	NFI	RMSEA(.05)	
							Lo90	Hi90
초기 모델	60.34	9	.000	.90	.97	.96	.04	.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모델을 최종 구조회귀 모델로 채택하고 이에 대한 모수치를 추정하여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를 알아보았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정서성기질은 공격성 및 주의집중 문제행동인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beta=.39, p<.001$ )과 어머니의 양육역량을 매개로한 간접적인 영향( $\beta=.07,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3.124(p<.001)$ 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반면, 유아의 활동성기질( $\beta=-.04, p<.001$ )은 어머니의 양육역량을 매개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3.018(p<.01)$ ). 사회성기질( $\beta=-.02, p<.001$ ) 역시 어머니의 양육역량을 매개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2.040(p<.05)$ ).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역량( $\beta=-.18, p<.001$ )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정서성기질( $\beta=-.40, p<.001$ ), 활동성기질( $\beta=.21, p<.001$ ), 사회성기질( $\beta=.11, p<.001$ )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최종 모형의 효과 분해

			standardized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정서성기질	→	외현화 문제행동	.39***	.07***	.46***
활동성기질	→	외현화 문제행동	-	-.04***	-.04***
사회성기질	→	외현화 문제행동	-	-.02***	-.02***
양육역량	→	외현화 문제행동	-.18***	-	-.19***
정서성기질	→	양육역량	-.40***	-	-.40***
활동성기질	→	양육역량	.21***	-	.21***
사회성기질	→	양육역량	.11**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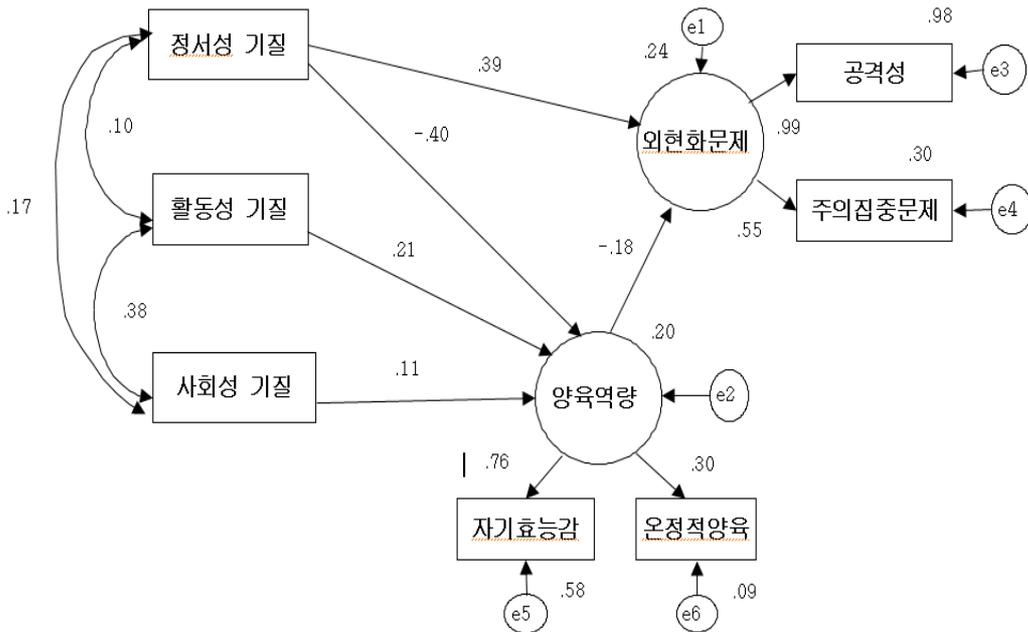
\*  $p<.05$ , \*\*  $p<.01$ , \*\*\*  $p<.001$

\* 이는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종속변수에 전달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며, 산출된 Z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은 값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Z값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Z = a \times b / \sqrt{(b^2 \times s_a^2 + a^2 \times s_b^2)}$$

독립변수 → 매개변수 회귀식 : a(비표준화 계수)  $s_a$ (표준오차)

매개변수 → 종속변수 회귀식 : b(비표준화 계수)  $s_b$ (표준오차)



[그림 3] 최종 연구모델의 경로분석 결과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과 외현화 문제행동 및 어머니의 양육역량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혀보 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 특성은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 유아의 기질특성 중 정서성기질은 어머니 양육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활동성기질과 사회성기질은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고(김미정, 이경님, 2011), 긍정적 양육행동이나 부정적 양육행동을 유발하며(김미정, 이경님, 2011; Belsky, 1984), 어머니의 지각이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Lengua, & Kovacs, 2004; Miner & Clarke-Stewart, 2008)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녀가 화를 잘 내거나 기분이 쉽게 나빠지는 등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기질을 가진 경우 어머니는 자신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자신을 신뢰하기가 어려우며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아기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많이 나타낸다고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낮아졌다고 보고 있는데(문영경, 민현숙, 2012; Teti & Gelfand, 1991), 자녀가 부정적 정서성을 많이 나타내는 경우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역량을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의 표출을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활동성기질은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자녀의 활동성기질을 어머니는 긍정적 행동특성(Coleman & Karraker, 2003)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활동적이며 사교적이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기질일 경우에는 어머니 자신의 능력 또는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아기 사회성기질 역시 어머니의 양육역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의 사회성기질과 양육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강상진, 2014) 및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부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문영경, 민현숙, 2012; 신나리, 안재진, 2014)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사회성기질이 높을 경우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역량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유아의 기질요인 중 정서성기질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유아의 기질요인 중 활동성기질과 사회성기질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많이 나타낼수록 유아의 공격성, 주의산만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다.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갈등과 문제 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놀이방해와 놀이단절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임현주(201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들이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까다롭고 부정적 정서 기질을 가질 경우 유아기 문제행동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임현주, 2014; Eisenberg, et al., 2005; Miner & Clarke-Stewart, 2008)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활동성기질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의미 있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활동성기질이 높은 집단일수록 또래간 놀이상호작용을 잘 하는 것(임현주, 2014)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활동성기질이 공격성을 나타내거나 주의 산만한 행동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함을 보여주는 활동성기질이 공격적이거나 과잉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원영미, 박혜원, 이귀옥, 2004; 이정숙, 문보경, 2010; 임현주, 2015; Berdan, et al., 2008)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서성기질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연구결과를 산출하는 것과는 달리 활동성기질과 관련해서는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향후 활동성기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며 활동성기질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서도 탐색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성기질은 기질 특성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구 관심을 덜 받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행동과는 의미 있는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성기질이 높은 집단일수록 또래 간 놀이 상호작용을 잘 하는 것(임현주, 2014)으로 미루어볼 때 사회성기질이 공격성을 나타내거나 주의 산만한 행동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또래방해 행동에도 사회성기질이 일정정도 영향을 주며(임현주, 2014), 사회성기질이 내면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임현주, 2015)으로 나타나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집단 생활경험이 증가하고 또래간 사회적 상호작용도 증가하는 시기인 유아기의 사회성기질에 대한 연구도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높을수록 자녀의 외현화된 문제행동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 양육 상황에서 직면한 다양한 양육문제에 대해 어머니가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에게 지시나 통제보다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며(최형성, 2005), 그 결과 자녀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하게 된다(최미나, 2015; Walker & Cheng, 2007). 어머니가 양육역량이 높을수록 온정적이고 반응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대하여 자녀와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진다(Coleman & Karraker, 2003; Kuhn & Carter, 2006; Leerkes & Crockenberg, 2002; Teti & Gelfand, 1991; Woods, 2011). 양육역량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발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지각하며, 자녀의 행동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상호작용함으로써 유아의 문제행동을 적응적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반대로 권위주의적 태도로 대하여(Sanders & Woolley, 2005)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할 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면 자녀의 문제행동 감소(Weavera, et al., 2008)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의 문제행동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요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은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대표적인 보호요인(Campbell, 2002; Fox, Dunlap, & Powell, 2002)으로 보고하고 있다. 어머니가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선행변인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어머니들의 역량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역량은 자녀의 기질적 특성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정서성기질을 높게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역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활동성기질과 사회성기질을 높게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역량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높을수록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낮게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정서성기질은 물론 어머니의 온정적이지 않은 양육, 민감성이 낮은 양육과 관련된다(Miner & Clarke-Stewart, 2008)고 볼 수 있다. 특히 부정적 정서성기질과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적 관계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Lengua, & Kovacs, 2004; Miner & Clarke-Stewart, 2008)는 자녀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양육역량은 다시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직접적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한 효과보다 유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나 상호작용 특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Rettew, Stanger, McKee, Doyle, & Hudziak, 2006)고 볼 수 있다. 영유아의 특정기질이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유아의 기질과 유아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궁극적으로 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질이 생물학적 기반을 둔 안정적 특성이나 기질의 표출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환경의 요구가 유아와 불일치하는 경우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Thomas, et al., 1984)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자녀의 기질 특성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며, 자녀의 기질에 맞는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서성기질은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의 정서성기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서성기질은 자녀의 타고난 특성이며, 변화가 쉽지 않으므로 어머니가 영유아의 기질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며, 자녀의 타고난 반응 경향성이 부모에게 원인이 있거나 책임이 있다고 지각하는 데서 오는 과도한 양육죄책감(성정원, 박성연, 2011)을 갖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역량은 안정적인 특성이라기 보다는 자녀의 기질 특성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종단연구(신나리, 안재진, 2014)에서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지각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덜 지속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안정적인 특성이기보다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은 어머니 개인의 정서 및 행동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이자 자녀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이면서, 자녀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자녀의 생애초기부터 어머니가 스스로에 대한 효능감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가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향상이 양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시사한 권신영, 서영숙(2015)의 연구결과와 연장선상에서 어머니에게 구체적인 상호작용 기술에 대한 교육에 앞서 어머니 자신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Kuhn & Carter, 2006)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최근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우울이나 양육스트레스 등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는 자녀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초점을 두고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문헌

- 강상진 (2014). 영유아 행동의 성장곡선 추정에 미치는 측정의 오차영향: 잠재특성모형과 관찰점수 모형의 비교(pp21-56). **한국아동패널2014 심층분석연구**(최윤경 편).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권신영, 서영숙 (2014). 영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실제 관계에서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소득수준의 조절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5), 101-115.
- 김명하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양육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정, 이경남 (2011).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253-271.
- 김수정, 광금주 (2013). 3세부터 7세까지 어머니의 애정/온정적 양육태도의 변화가 아동의 학교 적응에 주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1-19.
- 남궁령 (2014). 유아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정서표현성, 어머니 양육효능감, 유아 자기조절력 간의 관계 검증. **열린유아교육연구**, 19(3), 131-157.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영경, 민현숙 (2012). 영아의 기질, 발달수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이 영아

-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1), 59-70.
- 박수홍, 정계숙, 유미숙, 차지량, 홍광표 (2013).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액션러닝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육문제연구**, 31(2), 157-178.
- 성정원, 박성연 (2011).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자녀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1(2), 123-145.
- 신나나, 박보경, 김소영, 도현심 (2015). 모-자녀간 상호작용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순응/불순응 행동간의 상호적 관계: 단기종단연구. **아동학회지**, 36(5), 75-94.
- 신나리, 안재진 (2014).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간의 인과적 종단 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5(5), 135-154.
- 오경자, 김영아 (2009). **CBCL 1.5-5 매뉴얼 개정판**. 서울: 휴노컨설팅.
- 육아정책연구소 (2009). **한국아동패널 2009 (2차년도) 도구프로파일**.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 (2013). **한국아동패널 2013 사업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원영미, 박혜원, 이귀옥 (2004). 유아의 기질과 가정환경 및 유아의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 연변 조선족과 한국 유아의 비교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331-334.
- 이상균, 유조안 (2015). 빈곤관련 가족환경 위험요인의 잠재계층유형과 아동 문제행동간의 관계: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실천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48(6), 29-57.
- 이정숙, 문보경 (2010). 유아의 기질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55-74.
- 임현주 (2014). 유아의 성별,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4(6), 5-27.
- 임현주 (2015). 유아의 성별에 따른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5(2), 97-115.
- 장혜진, 이정림, 윤은주, 김해인 (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전은주 (2015).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유형, 양육효능감간의 구조모형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9(4), 391-412.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국정학회지**, 37(10), 123-133.
- 최미나 (2015).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283-310.
- 최형성 (2005). 양육효능감의 매개역할: 양육행동의 인과관계모형. **아동학회지**, 26(6), 351-36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Free man & Company.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rdan, L. E., Keane, S. P., & Calkins, S. D. (2008). Temperament and externalizing behavior: Social preference and perceived acceptance as protective factors. *Development Psychology*, 44(4), 957-968.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ampbell, S. B. (2002).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NY: The Guilford Press.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2), 126-148.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Eisenberg, N., Sadovsky, A., Spinrad, T. L., Fabes, R. A., Losoya, S. H., Valiente, C., Reiser, M., Cumberland, A., & Shepard, S. A. (2005). The Relations of problem behavior statu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effortful control, and impulsivity: Concurrent relations and prediction of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93-211.
- Fox, L., Dunlap, G., & Powell, D. (2002). Young children with challenging behavior: Issues and considerations for behavior support.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4*, 208-217.
- Gilliom, M., & Shaw, D. S. (2004). Codevelopment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2), 313-333.
- Gilmore, L. A., & Cuskelly, M. (2008). Factor structure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using a normative sample.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3*(1), 48-55.
- Halverson, C. F., & Deal, J. E. (2001). Temperamental change, parenting, and the family context. In T. D. Wachs, & G. A. Kohnstamm (Eds.), *Temperament in context* (pp. 61-79). Mahwah, NJ: Lawrence Erlbaum.
- Kuhn, J. C., & Carter, A. S. (2006). Maternal self-efficacy and associated parenting cognitions among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4), 564-575.
- Leerkes, E. M., & Crockenberg, S. C. (2002). The development of maternal self-efficacy and its impact on maternal behavior. *Infancy, 3*(2), 227-247.
- Lengua, L. J., & Kovacs, E. A. (2004). Bidirectional associ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parenting and the prediction of adjustment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5*(1), 21-38.
- Mathiesen, K. S., & Tambs, K. (1999). The EAS temperament questionnaire-factor structure, age trends, reliability, and stability in a Norwegian sampl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3), 431-439.
- Miner, J. L., & Clarke-Stewart, K. A. (2008). Trajectories of externalizing behavior from age 2 to age 9: Relations with gender, temperament, ethnicity, parenting, and rater. *Developmental Psychology, 44*(3), 771-786.
- Reder, P., Duncan, S., & Lucey, C. (2003). *Studies in the assessment of parenting*. London: Routledge.
- Rettew, D., Stanger, C., McKee, L., Doyle, A., & Hudziak, J. (2006). Interaction between child and parent temperament and child behavior problems. *Comprehensive Psychiatry, 47*,

412-420.

- Roskam, I., & Meunier, J.C. (2012). The determinants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trajectories: The effects of parental and child time-varying and time-invariant predi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6*(3), 186-196.
- Sanders, M. R., & Woolley, M. L.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1*(1), 65-73.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 Thomas, A., Chess, S., & Birch, H. G. (1984).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Walker, L. O., & Cheng, C. Y. (2007). Maternal empathy, self-confidence, and stress as antecedents of preschool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for Specialists in Pediatric Nursing, 12*(2), 93-104.
- Weavera, C. M., Shaw, D. S., Dishion, T. J., & Wilson, M. N. (2008). Parenting self-efficacy and problem behavior in children at high risk for early conduct problems: The mediating role of maternal depress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1*(4), 594-605.
- Woods, K. (2011). Examining the effect of medical risk, parental stress, and self-efficacy on parent behaviors and home environment of premature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Nebraska, US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mother's parenting competency. The 5th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ere analyzed in this study by using the structural mode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eschoolers' emotionality temperament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mothers' parenting competency. Preschoolers' activity and sociability temperament had a positive influence on mothers' parenting competency. Second, preschoolers's emotionality temperament also had a direct impact on their externalizing problems behavior, otherwise preschoolers's activity and sociability temperament were unrelated to that. Third, mothers' parenting competency had a negative influence on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s behavior. Finally, mothers' parenting competency had mediating effects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their externalizing problems behavio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arental education should be concerned about parenting competenc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preschooler's temperament.

▶*Key Words: temperament, parenting competency,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논문투고	2015. 10. 15.
수정원고접수	2015. 12. 11.
최종게재결정	2015. 12. 11.